

농촌지역주민의 동거유형별 주거만족도 조사 연구

- 전북 임실·순창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sidential Satisfaction by Type of Living-together in a Rural Area

박진만* 이동숙** 윤충열***
Park, Jinman Lee, Dongsuk Yoon, Choongyeul

Abstract

As a traditional agricultural society changes into an industrial society due to an industrialization policy since the 1960's, there is a tendency of decrease in population and being old in a rural area. Also there has been a remarkable decrease in the rate of large family and families of over three generations as a family type changes from a large family system to a nuclear family one.

According to recent studies, the rate of families of the old over 65 in a dong area is 17.0%, While that in eup and myon areas is 35.3% This shows the rural exodus of the young caused by urb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consciousness of residence by studying satisfaction of each room of a house by type of living-together in a rural area.

On the basis of this, to provide data for planning various residential environment by change of type of living-together in a rural area.

키워드 : 핵가족화, 농촌지역, 동거유형, 만족도

Keywords : nuclear family, rural area, type of living-together, satisfaction

1.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농촌지역의 경우 거주 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로의 가족유형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3대 이상의 대가족 비율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오늘날의 농촌주택은 환경의 변화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요인의 복합적인 작용현상으로 주요실의 규모 및 기능이 변모하고 있다¹⁾.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가구가洞지역은 17.0%인데 반해, 읍·面지역은 35.3%에 이르러 산업화에 의한 농촌지역에서 젊은층의 離農현상을 보여주고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농촌지역 거주주민의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동거 유형별로 분류, 동거 유형에 따른 주거 만족도를 비

* 정회원,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엄인섭, "농촌주택의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2호, p.13, 1997. 2

2)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p.67

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농촌지역의 동거 유형 변화에 따른 거주환경 계획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조사개요

2.1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지역은 전라북도 지역에 소재 하는 임실군과 순창군으로 이 지역은 시 지역과 약 3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 도시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으며, 농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고 있다.

조사 도구로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는데 초·중등학교의 학생을 통한 간접 설문조사와 마을을 방문한 직접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339부를 배포하고 237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유효한 197부를 활용하였다.

2.2 조사 대상의 속성

1) 용어의 정의

3대가 동거하는 가구를 ‘동거가구’, 3대가 동거하지 않는 가구를 ‘비동거가구’ 라 하였다.

또한 3대 동거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 즉 조부모 세대를 ‘상위세대’, 상위세대의 자녀로서 자신들의 자녀를 가진 기혼 자녀세대를 ‘중위세대’, 중위세대의 자녀 즉 상위세대의 손자녀 세대를 ‘하위세대’라 칭하였다.

2) 조사대상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속성

조사대상 지역 중, 임실군의 경우 1995년도 총 인구가 1970년도에 비해 65.5%의 인구 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순창군의 경우도 같은 기간동안 62.8%의 인구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대수의 변화에 있어서는 임실군의 경우 1995년도의 세대수가 1970년도에 비해 31.3%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순창군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25.8%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조사 대상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 세대수 감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대수의 감소 비율이 총인구의 감소 비율 보다 작게 나타나, 세대 구성원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그림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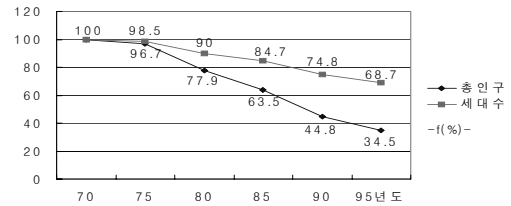


그림 1. 총인구 및 세대수의 변화 (임실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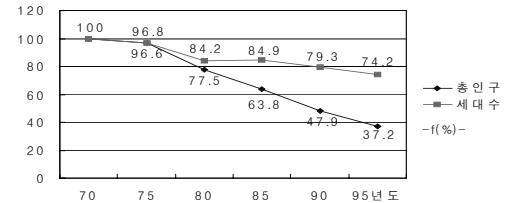


그림 2. 총인구 및 세대수의 변화 (순창군)

조사대상 지역의 세대별 가족 구성원수 변화를 보면, 구성원이 1~2명인 경우가 1970년에는 임실군이 7.4%, 순창군이 7.7% 이었던 반면, 1995년에는 임실군이 53.7%, 순창군이 55.1%로 나타났다. 또한 5명 이상인 경우가 1970년에는 임실군이 69.5%, 순창군이 69.3%인 반면, 1995년에는 임실군이 15.0%, 순창군이 13.7%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의 경우도 가족형태가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경우라 하겠다[그림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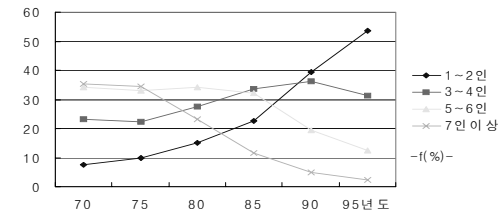


그림 3. 가족구성원수 변화 (임실군)
(전세대수에 대한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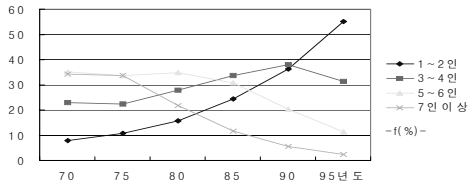


그림 4. 가족구성원수 변화 (순창군)
(전세대수에 대한 구성비)

조상대상 지역의 노인 인구의 구성 변화를 보면,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970년에는 임실군이 7.0%, 순창군이 7.8%인 반면, 1990에는 임실군이 19.5%, 순창군이 20.2%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조사대상 지역 인구의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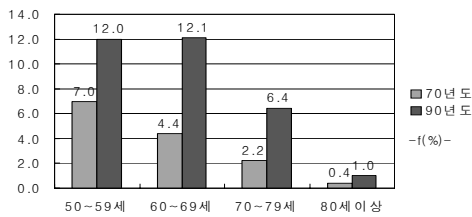


그림 5.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구성비 (임실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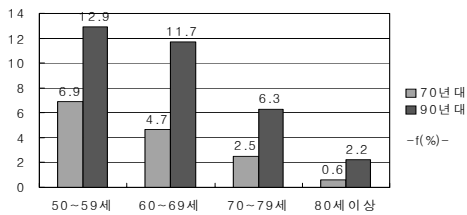


그림 6.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구성비 (순창군)

3) 설문 응답자의 속성

응답 세대 중, 동거가구와 비동거가구의 비율은 각각 26.9%, 73.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동거가구에서는 여성(64.2%)이, 비동거가구에서는 남성(60.4%)의 비율이 높

았다. 또한 응답자의 연령은 동거가구의 경우 70대가 43.4%로 가장 많고, 비동거가구의 경우 40대가 25.7%, 70대가 21.5%, 30대가 20.1%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농업이 가장 많으며, 동거가구의 경우에는 상업, 공무원 순이고, 비동거가구의 경우에는 상업, 주부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수에 있어서는 동거가구의 경우, 5~7명인 경우가 83.0%로 나타났으며, 비동거가구의 경우 2명인 경우가 34.0%로 가장 많고, 3~4명은 27.1%로 나타났다[표 1].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f(%)-

		동거가구	비동거가구
성별	남	19 (35.8)	87 (60.4)
	여	34 (64.2)	57 (39.6)
나이	-39세	4 (7.5)	29 (20.1)
	-49세	13 (24.5)	37 (25.7)
	-59세	1 (1.9)	7 (4.9)
	-69세	8 (15.1)	24 (16.7)
	-79세	23 (43.4)	31 (21.5)
	80세-	4 (7.5)	16 (11.1)
직업	농업	23 (43.4)	55 (38.2)
	축산업	1 (1.9)	7 (4.9)
	상업	4 (7.5)	17 (11.8)
	공무원	3 (5.7)	7 (4.9)
	회사원	1 (1.9)	4 (2.8)
	무직	12 (22.6)	27 (18.8)
	주부	1 (1.9)	15 (10.4)
	기타	6 (11.3)	9 (6.3)
가족수	1명	0 (0.0)	15 (10.4)
	2명	2 (3.8)	49 (34.0)
	3명	1 (1.9)	8 (5.6)
	4명	2 (3.8)	31 (21.5)
	5명	13 (24.5)	31 (21.5)
	6명	20 (37.7)	9 (6.3)
	7명	11 (20.8)	0 (0.0)
	8명	4 (7.5)	0 (0.0)

주) 무응답은 missing데이터 처리로 빈도차이 있음

4) 응답자 거주 주택의 속성

현 주택의 소유 형태를 보면, 동거가구의 自家率(83.0%)이 비동거가구(7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공동주택 비율은 동거가구가 3.8%, 비동거

가구가 4.9%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공동주택에서의 거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실수에 있어서는 3개 이상인 경우가 동거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많으며, 비동거가구보다 동거가구에서의 3실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침실을 자녀 또는 손자녀와 공동 사용 경우는 동거가구(49.0%)가 비동거가구(11.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거실이 있는 경우는 동거가구(62.3%)가 비동거가구(40.3%)보다 높았으며, 거실 용도의 경우 두 유형에서 모두 가족 휴식과 손님 접대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엌의 형태는 두 유형에서 모두 입식인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재래식인 경우는 동거가구(26.4%)가 비동거가구(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 재래식 부엌에 부엌가구만을 입식으로 설치한 개량식의 경우는 비동거가구(31.9%)가 동거가구(18.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화장실의 형태가 수세식인 경우는 동거가구(26.4%)가 비동거가구(38.9%)보다 낮게 나타났다. 두 유형에서 모두 실외에만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비동거가구가 높은 비율을 보이며, 실내·외에 모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동거가구에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3. 동거유형별 주요 실별 만족도

현 주택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동거가구에서는 52.8%가, 비동거가구에서는 36.2%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3.1 침실만족도

침실 만족도와 주택 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침실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비동거가구(2.16) 보다 동거가구(2.53)에서의 평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침실수와 침실만족도에서는 두 유형에서 모두 침실수가 많을수록 침실 만족도가 높았다[표 4].

표 2. 현 거주 주택의 속성 -f(%)-

		동거가구	비동거가구
소유형태	자기집	44 (83.0)	108 (75.0)
	전월세	4 (7.5)	28 (19.4)
	기타	4 (7.5)	8 (5.5)
주택형태	단층주택	35 (66.0)	118 (81.9)
	2층주택	5 (9.4)	6 (4.2)
	저층아파트	2 (3.8)	6 (4.2)
	고층아파트	0	1 (0.7)
	기타	10 (18.9)	11 (7.6)
침실수	1개	0	8 (5.6)
	2개	8 (15.1)	52 (36.1)
	3개 이상	44 (83.0)	84 (58.3)
거실유무	유	33 (62.3)	58 (40.3)
	무	20 (37.7)	85 (59.0)
부엌형태	개량식	10 (18.9)	46 (31.9)
	입식	27 (50.9)	75 (52.1)
	재래식	14 (26.4)	18 (12.5)
화장실형태	수세식	14 (26.4)	56 (38.9)
	재래식	28 (52.8)	73 (50.7)
	수세식과 재래식	10 (18.9)	11 (7.6)
화장실 위치	실내	11 (20.8)	45 (31.3)
	실외	27 (50.9)	80 (55.6)
	실내외	15 (28.3)	18 (12.5)
침실공동사용유형	혼자	3 (5.7)	21 (14.6)
	배우자	22 (41.5)	96 (66.7)
	자녀와	4 (7.5)	11 (7.6)
	손자녀와	22 (41.5)	5 (3.5)
	가족모두	5 (9.4)	14 (9.7)
거실의 용도	가족휴식	18 (33.9)	33 (22.9)
	손님접대	14 (26.4)	28 (19.4)
	용품보관	7 (13.2)	9 (6.3)
	제사	4 (7.5)	8 (5.6)
	식사	8 (15.1)	10 (6.5)
	용도없음	8 (15.1)	20 (13.9)
	기타	0	7 (4.9)

주)무응답은 missing 데이터 처리로 빈도차이 있음

표 3. 각실의 만족도별 주택만족도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매우 만족	M	3.62	3.57	3.44	3.50	3.71	3.60	3.44	3.33
	SD	4.26	4.21	4.27	4.42	4.51	4.45	4.27	4.18
만족	M	2.95	2.58	2.69	2.79	2.89	2.50	3.08	2.42
	SD	4.61	4.22	4.54	4.23	4.43	4.24	4.51	4.15
보통	M	1.92	2.09	2.44	2.10	2.08	2.05	2.10	2.14
	SD	0.72	4.28	4.47	4.28	4.49	4.19	4.43	4.19
불만	M	1.56	1.51	2.14	1.67	2.00	1.64	2.28	2.00
	SD	4.12	4.22	3.93	4.28	3.96	4.14	4.25	4.10
매우 불만	M	1.50	0.75	-	5.00	0.00	1.50	0.33	0.90
	SD	2.88	4.04	-	3.78	-	3.59	4.42	4.26
계	M	2.53	2.16	2.53	2.16	2.53	2.16	2.53	2.16
	SD	4.03	4.06	4.03	4.06	4.03	4.06	4.03	4.06
F		15.64	19.50	3.96	6.93	12.47	10.75	17.06	9.92
		***	***	**	***	***	***	***	***

① 동거가구 ② 비동거가구

*** P<0.001 ** P<0.01 * P<0.05

표 4. 침실수별 침실만족도

		거실	
		동거가구	비동거가구
1개	M	-	1.37
	SD	-	3.70
2개	M	1.50	1.88
	SD	4.07	4.17
3개이상	M	2.64	2.40
	SD	3.94	4.11
계	M	2.49	2.16
	SD	3.88	4.06
F		5.10**	8.64***

*** P<0.001 ** P<0.01 * P<0.05

응답자 침실의 공동 사용 유형별 만족도를 보면, 동거가구에서는 자녀 또는 가족 모두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손자녀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동거가구에서는 자녀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단독 사용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거가구에서는 단독 사용보다 배우자와 공동 사용시 만족도가 높으나, 비동거가구에서는 배우자와의 공동 사용보다 단독 사용시 만족도가 높아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표 5].

표 5. 침실의 공동사용유형별 침실만족도

		침실만족	
		동거가구	비동거가구
혼자	M	2.33	2.35
	SD	3.47	4.07
배우자	M	2.42	2.28
	SD	4.16	4.07
자녀와	M	2.00	1.44
	SD	-	4.47
손자녀와	M	2.76	2.20
	SD	3.70	4.55
가족모두	M	2.00	1.50
	SD	3.78	3.98
계	M	2.49	2.16
	SD	3.88	4.06
F		1.02	2.70

3.2 거실만족도

거실 만족도와 주택 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동거가구의 경우에는 거실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택 만족도가 높으며, 비동거가구의 경우에도

매우 불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실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택 만족도가 높았다.

거실 용도별 거실 만족도를 보면 동거가구의 경우에는 손님 접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가족 휴식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동거가구의 경우에는 식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손님 접대와 용품 보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6].

표 6. 거실용도별 거실만족도

		거실만족	
		동거가구	비동거가구
가족휴식	M	2.83	2.55
	SD	4.25	3.96
손님접대	M	2.00	2.67
	SD	3.59	4.42
용품보관	M	2.50	2.67
	SD	4.29	4.42
식사	M	2.50	2.50
	SD	3.71	4.29
용도없음	M	2.29	2.20
	SD	3.89	3.53
계	M	3.30	3.56
	SD	3.61	3.40
F		7.24***	17.50***

*** P<0.001 ** P<0.01 * P<0.05

거실의 용도는 두 가족유형 모두 가족휴식, 손님접대, 식사, 보관, 제사 순으로 나타났다.

3.3 부엌만족도

부엌 만족도와 주택 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부엌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비동거가구(2.16)보다 동거가구(2.53)에서의 평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엌의 형태별 만족도를 보면, 동거가구에서는 재래식인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입식보다 오히려 개량식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동거가구에서는 재래식인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입식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거가구 응답자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자의 비율이 높아, 평소 익숙해져 있는 재래

식 부엌에 입식가구가 설치된 개량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7].

표 7. 부엌형태별 부엌만족도

		부엌 만족	
		동거가구	비동거가구
개량식	M	2.52	2.07
	SD	4.03	4.19
입식	M	2.50	2.57
	SD	3.99	4.07
재래식	M	1.79	1.22
	SD	3.81	4.06
계	M	2.32	2.13
	SD	3.93	4.01
F		1.65	9.72***

*** P<0.001 ** P<0.01 * P<0.05

3.4 화장실만족도

화장실 만족도와 주택 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비동거가구의 경우에는 화장실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택 만족도가 높으며, 동거가구의 경우에도 불만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실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택 만족도가 높았다.

화장실의 위치별 만족도를 보면, 두 유형에서 모두 실외에만 있는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동거가구에서는 실내·외에 모두 있는 경우가, 비동거가구에서는 실내에만 있는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거가구 응답자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자의 비율이 높아, 평소 익숙해져 있는 실외 화장실과 편리한 실내 화장실이 함께 있는 경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8].

표 8. 화장실의 위치별 화장실만족도

		화장실 만족	
		동거가구	비동거가구
실내	M	2.80	2.94
	SD	4.17	4.10
실외	M	1.37	1.69
	SD	4.07	4.01
실내외	M	3.09	2.31
	SD	3.92	4.44
계	M	2.13	2.01
	SD	3.77	4.98
F		17.80***	9.50***

*** P<0.001 ** P<0.01 * P<0.05

화장실의 형태별 만족도를 보면, 두 유형에서 모두 재래식인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수세식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9].

표 9. 화장실 형태별 화장실만족도

		화장실 만족	
		동거가구	비동거가구
수세식	M	3.14	2.21
	SD	4.23	4.05
재래식	M	1.43	1.81
	SD	4.04	3.96
수세식+재래식	M	2.80	2.11
	SD	1.14	3.83
계	M	2.13	2.01
	SD	3.77	3.97
F		12.54***	2.24

*** P<0.001 ** P<0.01 * P<0.05

4. 현 주택 주요실 불만족 요인

주요실의 물리적 조건과 환경·설비적 조건에 있어 응답자가 갖는 불만족 요인은 각 실의 만족도는 물론 주택 만족도에도 중요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표 10].

표 10. 각 실의 불만족 이유 -f(%)-

		동거가구	비동거가구
침실	실수부족	6 (11.3)	15 (10.4)
	협소	15 (28.3)	31 (21.5)
	난방 부족	3 (5.7)	13 (9.0)
	일조량 부족	4 (7.5)	14 (9.7)
	환기부족	4 (7.5)	12 (8.3)
	기타	6 (11.3)	6 (4.2)
거실	협소	11 (20.7)	10 (6.9)
	어두워서	1 (1.9)	4 (2.8)
	난방부족	6 (11.3)	13 (9.0)
	기타	3 (5.7)	7 (4.9)
부엌	협소	14 (26.4)	33 (22.9)
	어두워서	7 (13.2)	12 (8.3)
	재래식	6 (11.3)	17 (11.8)
	환기부족	6 (11.3)	17 (11.8)
	기타	3 (5.7)	8 (5.6)
화장실	실수부족	2 (3.8)	2 (1.4)
	협소	12 (22.6)	18 (12.5)
	환기부족	9 (16.9)	11 (7.6)
	재래식	13 (24.5)	33 (22.9)
	미끄러워	1 (1.9)	2 (1.4)
	손잡이가 없어서	2 (3.8)	2 (1.4)
	기타	5 (9.4)	19 (13.2)

주)무응답은 missing 데이터 처리로 빈도차이 있음

4.1 침실

침실에서의 불만족 요인은 두 유형에서 모두 협소, 실 수 부족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동거가구에서는 39.6%, 비동거가구에서는 31.9%로 나타났다.

그 외의 요인으로, 동거가구에서는 일조량 부족, 환기부족, 난방부족 순이고, 비동거가구에서는 일조량 부족, 난방부족, 환기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침실의 환경 설비적 조건보다는 침실의 물리적 조건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설비적 조건에서도 일조량 부족의 비율이 높아 침실의 向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거실

거실에서의 불만족 요인은 동거가구에서는 협소, 난방부족, 어두워서 순이고, 비동거가구에서는 난방부족, 협소, 어두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설비적 조건 중 난방 부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는데, 이는 거실의 이용 빈도가 낮아, 난방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타 실에 비해 무응답율이 매우 높는데 이는 거실에서의 생활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예측하게 하는 결과라 볼 수 있겠다. 특히 비동거가구에서의 응답율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핵가족의 생활에 있어서 거실의 중요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3 부엌

부엌에서의 불만족 요인은, 동거가구의 경우 협소, 어두워서, 재래식, 환기부족 순이고, 비동거가구의 경우 협소, 재래식, 환기부족, 어두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부엌의 경우 환경·설비적인 조건보다 물리적인 요인에 의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거가구의 경우, 재래식의 비율이 비동거가구보다 높은데도 이보다는 어둡다는 불편 요인에 대한 수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

답자의 성별, 연령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동거가구의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고, 60세 이상의 연령자의 비율이 높아, 장기간의 생활 습관으로 재래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4.4 화장실

화장실에서의 불만족 요인은, 두 유형에서 모두 재래식, 협소, 환기부족 순으로 나타나 재래식이 가장 문제시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타 실에서의 결과와는 다르게, 물리적 조건인 협소보다 설비적 조건인 화장실 형태가 주요 불만족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거가구의 경우 협소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재래식에 대한 불만족 비율과의 차이가 적어, 두 요인의 중요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유형에서 모두 실외 화장실의 비율이 가장 높고, 실외 화장실의 경우, 재래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간과 겨울철 이용시 불편함이 영향을 준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의 3대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현 거주 주택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침실

동거가구의 경우는 손자녀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상위세대가 하위세대와 공동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거가구에서는 단독 사용보다 배우자와 공동 사용시 만족도가 높으나, 비동거가구에서는 배우자와의 공동 사용보다 단독 사용시 만족도가 높아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공동 사용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배우자의 결손여부와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침실에 대한 불만족 요인 중, 침실의 환경·설비적 조건보다는 침실의 물리적 조건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침실의 向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거실

동거가구에서는 가족간의 공용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손님접대의 용도일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가족간의 관계성에 있어 비동거가구에 비해 거실의 비중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거실에서의 불만족 요인에서 환경·설비적 조건 중 난방부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는데, 이는 거실의 이용 빈도가 낮아, 난방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부엌

동거가구에서는 개량식인 경우가, 비동거가구에서는 입식인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가구 응답자의 고연령자 비율이 높아, 평소 익숙해져 있는 재래식 부엌에 입식가가가 설치된 개량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엌에서의 불만족 요인은, 환경·설비적인 조건 보다 물리적인 요인에 의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거가구의 재래식의 비율이 비동거가구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만족 수치가 낮은데, 응답자 중 여성과 고연령자의 비율이 높아, 장기간의 생활 습관으로 재래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4. 화장실

동거가구에서는 실내·외에 모두 있는 경우가, 비동거가구에서는 실내에만 있는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거가구 응답자의 경우 고연령자의 비율이 높아, 평소 익숙해져 있는 실외 화장실과 편리한 실내 화장실이 함께 있는 경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에서의 불만족 요인은, 물리적 조건보다 설비적 조건인 재래식이 주요 불만족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1. 엄인섭, 농촌주택의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2호, 1997.2.
2. 정무용 외, 노인주거 관련 연구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11호, 1996. 11.
3. 박근형 외, 노인을 위한 도시 공동주택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1호, 1996. 1.
4. 김성우 외, 공간 사용을 중심으로 본 농촌주택의 근대화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6호, 1996. 6.
5. 윤충열 외, 노년층의 주거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주거학회지 9권 3호, 1998.11.
6. 정성수 외, 주택유형별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권 9호, 1999. 9.
7. 박태환, 노년건축학, 보성각, 1995